

한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 반성과 제언*

이 현 재**

논문초록 이 글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은 어떤 모습을 띠며 변화해 왔는가? (2)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자의 수와 그 연구 역량 및 사회 공헌도는 어떤 모습을 띠며 변화해 왔는가? (3) 한국의 경제학과 한국 경제학자의 현 수준은 국제 학계의 그것과 견주어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는가? (4) 한국의 경제학 내지는 한국의 경제학자에 대해 그동안에 제기된 비판에는 어떠한 게 있으며 그것은 타당한 비판인가? (5) 한국의 경제학자가 깊이 천착할 만한 경제문제에는 어떠한 게 있는가? 등의 물음에 답을 찾는 시도를 서술한 것이다.

핵심 주제어: 한국의 경제학, 한국의 경제학자, 평가와 제언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0, A20, A11

투고 일자: 2025. 6. 26. 심사 및 수정 일자: 2025. 7. 19. 게재 확정 일자: 2025. 7. 25.

* 이 글은 대한민국학술원 「2024년 전문학술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다.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준 이지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두 분의 논문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mail: jisoonlee@gmail.com

I. 서 언

대한민국을 건국하던 당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싹틔우기 시작했던 경제학 교육과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경제학도가 노력한 데 힘입어서 교육과 연구의 양과 질이 충실해졌으며 한국 경제학자의 역량도 강화되었다. 수천 명의 학자가 국내의 학교와 연구소와 정부와 기업체 등에서 활약 중이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지의 학교, 연구소, 국제기구, 기업체, 정부 기구, 비정부 단체 등에서 활약 중인 한국 출신의 경제학자도 많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연마한 후 사회에 나아가서 본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 중인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도 한국 경제학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종사하면서 인류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경제학도도 많으며 경제학 관련 학회가 주축이 되어서 외국 학계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이다.¹⁾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학계와 한국의 경제학자에게는 아직 반성하고 분발해야 할 점들이 많다. 한국 경제학의 역사가 사람으로 치면 고회를 넘긴 이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의 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조금도 무의미하지 않다. 망백의 필자가 평생 몸담아온 한국의 경제학계를 돌아보며 몇 가지 고언을 하려는 소이는 본인의 제자와 그들의 동학 그리고 국내외에서 그들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현역 경제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이 글에서 전개한 논지를, 특히 한국의 경제학과 한국 경제학자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충분하게 열거하지 못한 데 대해 독자의 이해를 구한다. 필자의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II. 경제학 선현의 학문하는 자세

1. 애덤 스미스(1723~1790): 자리심(自利心)과 동감(同感)

모든 사람이 그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스미스는 경제학의 기초를 놓은 대학자이다. 여기에서 학문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그때까지 도덕철학의 한 부분이

1)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 8월에 국내외 경제학도 약 5천 명의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25 계량경제학회 세계대회(2025 Econometric Society World Congress)」이다.

던 경제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독립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길을 열었음을 말한다. 당시에 경제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를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른 데서 보듯이 경제학은 독립 학문 분야가 아니었다. 정치경제학에서 ‘정치’를 떼어 내 경제학으로 자립하게 된 것이 앨프리드 마셜이 케임브리지경제학과를 창시한 1903년의 일이므로, 스미스가 죽은 후 백 년도 더 지나서야 경제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행한 강좌에서 신학(theology), 윤리학(ethics), 법학(jurisprudence) 그리고 실천학(expediency, 현대적 의미로는 경제학)의 핵심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의 저서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²⁾은 신학과 윤리학 강좌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고,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은 실천학 강좌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법학 강좌의 내용도 독립된 저서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스미스는 신(자연)의 섭리를 믿은 학자였다. 탐욕스러운 인간이 벌이는 무한 경쟁과 투쟁으로 인해 세상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무질서해 보이지만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안정과 번영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신(자연)이 사람 속에 심어 놓은 심성인 ‘나의 처지에서 보는 마음’ 곧 자리심(自利心)과 ‘남의 처지에서 보는 마음’ 곧 동감(同感)이 스미스가 생각한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손의 배경이다. ‘남이 네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라’는 황금률에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자리심을 연약함으로 동감을 현명함으로 부르면서, 연약함은 부와 지위와 명예를 쫓는 데로 우리를 이끌고 현명함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쫓는 데로 우리를 이끈다고 생각했다.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연약함과 현명함이 공존하는데, 현명함이 우세한 사람(현인)은 소수이고 연약함이 우세한 사람(평상인)이 다수이다. 평상인의 마음속에도 현명함이 있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연약함을 제어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현인의 그것보다 약하다. 현인에게도 연약함이 있으나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평상인의 그것보다 강하다. 또한 연약함에 휘둘리는 평상인도 나이가 들수록 현명함이 우세하게 된다. 한평생 피땀 흘리며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막상 노년이 되어 일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게 허망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 도덕감성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참된 행복은 현명함에서 나오며 인생은 일장춘몽이지만 모든 이가 안빈낙도의 길을 걸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게 스미스의 생각이다. 자리심을 좇아 사는 게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자연(신)에 속아서 평생을 지금보다 더 나은 앞날을 만들고자 밤낮으로 애쓰는 게 평상인의 모습이다. 연약함에 휘둘리는 게 보통 인간의 숙명이며 우리네 대부분이 바로 그 연약함을 좇아 살아가기에 인류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게 스미스의 생각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므로 각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한 일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사회는 발전하며 그렇지 않은 사회는 퇴보한다. 이때 각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조화로운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게 건전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이다. 거래 상대방에게 그 누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리심을 추구하는 각자의 행위를 최선의 결과를 낳는 데로 이끈다. 여기에서 무엇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길인가 알려주는 게 바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동감이다. 모두가 동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자리심을 충족하는 최선의 길이 되도록 이끄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스미스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주창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인간이 지닌 자리심이 가장 힘차게 작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동감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동감을 따르는 게 지속해서 자리심을 충족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주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심을 좇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자리심을 추구하는 행위가 모두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려면 사회 구성원 사이에 동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동감해야 하는가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서 구성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다수가 동감하는 것이라도 모두가 그것을 따른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공동체마다 규범을 정해서 그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자리심을 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는 이를 정의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자리심의 발로를 창달하는 자유와 동감을 지탱하는 정의가 스미스가 생각하는 '번영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자리심을 꽃피우려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동감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게 스미스 사상의 요체이다.

2.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 이론가이자 실천가

리카도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14세부터 부친의 사

업을 도우면서 후계자 수련을 받았다. 그러나 21세 때 부모가 이단시하는 그리스도교도 여인과 사랑에 빠져 기독교로 개종하자 그의 부모는 가차 없이 부자의 연을 끊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립해야 했던 리카도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러다가 당시에 꽤 유명하던 어떤 금융회사의 지원으로 사업을 벌여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모았으며 특히 정부가 발행한 채권 즉, 국채를 사고팔아서 거금을 벌었다. 그만큼 벌었으면 되었다고 판단한 리카도는 비교적 젊은 40대 중반에 그동안 하던 사업을 접고 런던에서 서쪽으로 꽤 떨어진 글로스터에 있는 시골의 고풍스러운 저택으로 '은퇴'했다.

그러나 유유자적하는 은퇴자의 삶은 리카도의 몫이 아니었다. 시골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카도는 그곳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의 최고 보안관으로 뽑혀서 봉직하였다(1818). 그러던 중에 빛으로 허덕이던 포탈링턴(Portarlington) 경의 의석을 승계해서 (사들여서) 글로스터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영국 의회에 진출했다. 의원이 된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51세에 작고하기까지 5년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관세 인하와 곡물법 폐지 운동에 앞장섰다.

리카도는 37세에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이 발권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논문을 쓴 이래 죽기 전까지 약 14년에 걸쳐서 노동가치설, 지대이론, 비교우위에 근거한 자유 무역론, 리카도 등가론 등 현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주 뛰어난 경제이론을 수립하였다. 그는 수학자였으며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다.

리카도가 제시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설은 국제무역론의 기초다.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상품에 대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나라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덜 유리한 상품을 수입하는 게 이득이 되며,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나라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상품을 수입하는 게 이득이 된다는 게 비교우위설이다. 리카도가 주창한 정태적 비교우위설(static comparative advantage)은 오늘날 동태적 비교우위설(dynamic comparative advantage)로 확장되었다.

리카도의 생애를 일별할 때 놀라운 일은 그가 당시의 엘리트들이 걸었던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탁월한 경제이론을 전개했다는 사실이다. 해외에서 온(극단적인) 유대교인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리카도는 기독교 교리를 충실하게 따르던 영국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임스 밀, 제러미 벤담, 토마스 맬서스 등과 가까이 교류하면서 경제관을 형성했으며, 투자가로 활동하면서 경제의 실상을 관찰

하였고, 의원으로서 주요 경제법안을 입안하면서 경제정책에 관한 식견을 연마하였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일련의 뛰어난 경제이론을 펼친 리카도의 업적은 그가 얼마나 우수한 인재인가를 잘 보여준다.

3. 앨프리드 마셜(1842~1924): 학문의 길에서 평생을

마셜은 케임브리지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자다. 수학에 천재적 소질을 보인 그의 학문 여정은 수학에서 출발하여 물리학, 인지학 그리고 윤리학을 거쳐 경제학에 도달했다. 이 여정에서 그는 헨리 시지윅(Henry Sidgwick)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경제학을 탐구하면서 그가 가졌던 최대의 관심사는 ‘육체노동자(blue color workers)’의 처지를 개선할 전제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었다.

마셜은 1885년에 케임브리지대학의 정치경제학 석좌교수로 취임하여 건강을 이유로 사임한 1908년까지 23년간 봉직하였다. 석좌교수 취임사에서 행한 ‘냉철한 두뇌 그러나 따뜻한 가슴(cool heads but warm hearts)’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게 그의 목표라는 연설은 오늘날까지도 마셜을 대표하는 어록으로 남아있다. 그는 석좌교수 취임 당시부터, 도덕과학(moral sciences)과 역사학(history)의 학 분야로 되어 있는 ‘정치경제학’을 ‘경제학’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이상이 실현된 것은 케임브리지 경제학부(Cambridge School of Economics)가 창설된 1903년에 이르러서였다.

마셜은 케임브리지경제학과의 창시자요 신고전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의 완성자로 불린다. 피구와 케인스 같은 불세출의 제자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피구와 케인스의 제자 그리고 그들이 길러낸 제자들이 영국의 주요 대학에서 마셜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마셜의 역작인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이는 경제의 주체인 사람과 객체인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최초의 이론서다. 마셜을 신고전 경제학의 완성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으며 그가 가르친 제자와 그 제자의 제자가 영국 전역에 퍼져서 마셜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발전시킨 게 그를 케임브리지경제학과의 창시자로 보는 연유이다.

마셜은 리카도처럼 사업을 펼치거나 스미스나 리카도처럼 공직에 나감이 없이 평생을 연구실에서 보낸 학자다. 강좌에 헌신하는 한편 학교 인근에 있는 저택에서 사색

하고 저술하며 학생을 만나 가르침을 주고 지인과 교류하였다. 매해 여름 서너 달에 걸쳐서 알프스 산악지대를 도보로 순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신 사이의 합당한 관계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내용이 그의 저작물에 녹아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은 마셜에게서 참 학자의 모습을 본다.

4.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 크고 강한 정부

케인스는 거시경제학의 창시자이며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한 학자이다. 마셜과 피구의 수제자이면서도 그들이 설파한 ‘경제란 가만히 두면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라는 고전 경제이론의 순진함을 통박하고 ‘인간의 불완전성과 세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대로 두면 경제가 커다란 나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려면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정부가 나서서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을 통해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능력을 중시한 게 케인스가 이룬 혁신이다. 그의 스승인 고전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정부는 국방, 치안, 재산권 보호와 계약이행 보장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면 모든 걸 시장이 알아서 원만히 처리하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로 보아서도 최선이다’라고 주장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창한 케인스의 이론은 대공황에 시달리던 서방 경제에 구원의 복음이었다. 특히 미국은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최소한의 역할만 행하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적자재정을 백안시하던 고전과 경제학자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정부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위 진보적 지식인과 정치가들에게 더할 수 없이 반가운 희소식이었다. 케인스의 거시 이론이 풍미하면서부터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서방국들이 재정지출을 늘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은 나라들조차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케인스가 등장하던 시기에 서방 주요국들의 재정지출 비중은 그 나라 국민소득의 10% 이하였는데 지금은 모든 국가에서 그 비중이 40%가 넘으며 경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한둘이 아니며 개개인의 경제행위를

간섭하고 규율하는 규제가 수만 개에 이른다.

케인스도 리카도처럼 거의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마하였다. 그가 마셜의 경제학 강좌를 수강한 기간은 한 학기에 불과하며 학자의 길을 걷기보다는 전문 관료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1906년에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케인스는 인디아 부(India Department)에서 근무하였으나 이내 흥미를 잃고 2년 만에 케임브리지대학으로 복귀했다. 이처럼 케인스의 마음은 학교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과 관료가 되어 정책을 집행하는 일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1차대전 시기에 다년간 정부부서에서 근무한 것이나, 2차대전의 종료가 임박한 시기부터 전후 수년 동안에 이르기까지 브레튼우즈체제로 불리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 헌신한 데서 케인스의 참여 정신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케인스는 다수의 저서를 냈는데 이는 세상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한 데 바탕을 둔 업적으로서 케인스가 남달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대학 안팎을 드나들며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케인스에 버금가는 학설을 남긴 사람은 드물다.

5. 밀턴 프리드먼(1912~2006):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와 시장

뉴욕의 중산층 유대교 가문 출신인 프리드먼은 학사학위를 럿거스대학(1932)에서, 석사학위를 시카고대학(1933)에서 그리고 박사학위를 컬럼비아대학(1946)에서 취득하였다. 석사학위 취득 후 컬럼비아대학의 장학생 자격으로 호텔링에게 통계학을 사사한 이후 시카고대학으로 돌아와서 숄츠의 연구조교로 봉직하였다. 그가 학생으로서 시카고대학에 머문 기간은 1932-1933년 그리고 1934-1935년인데 그 짧은 기간에 제이콥 바이너, 프랑크 나이트, 헨리 사이먼즈,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헨리 숄츠 등의 스승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며 평생 동지가 된 조지 스티글러와 앨런 윌리스와 우정을 나누었다. 이런 만남이 훗날 그를 시카고경제학파의 아버지가 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반유대 정서가 강하던 당시의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데 실패한 프리드먼은 1935년에 워싱턴으로 가서 국가자원계획부에서 2년간 재직하였다. ‘뉴딜’ 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대통령이 젊은 경제학도를 다수 고용한 덕택에 일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는 ‘뉴딜’ 정책 중 고용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가격과 임금 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이 당시의 경험이 안나 슈워츠와 공동으로 저술한 역저인

「미합중국의 통화 역사: 1867-1960」을 낳은 토대가 되었다. 당시 프리드먼의 주 임무는 대규모 소비 예산 조사(consumer budget survey)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는 일이었는데 이때 쌓은 지식이 훗날 그의 대표 저서인 「소비함수이론」(1957)의 바탕이 되었다.

1937년에는 전국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사이먼 쿠즈네츠를 도와 전문인력의 소득 현황을 조사하는 일에 종사했는데 이때의 경험이 효과적인 진입장벽을 구축한 전문가 집단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소득보다 훨씬 큼을 입증한 연구로 이어졌다. 1940년에는 위스콘신 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반유대 정서에 부닥쳐서 사임하고 1941년에 워싱턴으로 돌아와 1943년까지 재무성에서 봉직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종업원의 봉급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는데 그것은 그가 평생 반대하던 케인스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그 일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했다. 그 후에 프리드먼은 컬럼비아대학 전염연구부에서 2차대전 종전까지 수리 통계 전문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945년에 미네소타대학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프리드먼은, 시카고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할 당시 스승이었던 바이너가 프린스턴대학으로 이직함에 따라서, 1946년에 미네소타를 떠나서 시카고대학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1977년에 교수직을 내려놓기까지 30년을 봉직하면서 시카고경제학파의 대부가 되었다. 그는 「소비함수이론」(1957), 「자본주의와 자유」(1962), 「미합중국의 통화 역사: 1867-1960」(1963, 안나 슈바르츠 공저), 「자유로운 선택」(1980, 로즈 프리드먼 공저)³⁾ 등의 저서를 내었으며, 화폐수량설, 항상소득가설, 변동환율제도, 자연실업률가설, k% 준칙 등의 학설을 주창하였다. 시카고대학 경제학부에 주례 세미나인 화폐 금융 워크숍을 개설해서 다수의 경제학 대가를 길러내었다.⁴⁾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다. 그는 합당한 몫을 철저히 이행하는 작은 정부, 준칙을 따르는 통화정책,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선호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드먼의 경제사상은 크고 강한 정부를 주창했던 케인스의 경제사상과 대비된다. 새뮤얼슨은 ‘지적 도발자(intellectual provocateur, 1969)’라는 글에서 프리드먼을 수산물 운반 차량의 수조 안에 든 장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원문은 ‘To keep the fish that they carried on long journeys lively and fresh, sea

3) 국내 번역서의 표제는 『선택할 자유』로 되어 있다.

4) 워크숍에서 프리드먼이 던지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it?”라는 물음이 발표자를 사색으로 몰아간 일화가 유명하다.

captains used to introduce an eel into the barrel. In the economic profession, Milton Friedman is that eel.’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미끄러운 장어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 자’라로 묘사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듯싶다.

6. 폴 사무엘슨(1915~2009): 경제의 수리 분석

사무엘슨은 경제학에 수리적 분석 기법이라는 강건한 토대를 제공한 현대경제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최우수 학위논문상을 받으며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후 반유대인 정서가 엷은 MIT의 교수로 임용되어 평생을 봉직하였다. 오늘날 MIT 경제학부가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누리는 것은 사무엘슨의 공적이다.

그는 경제학의 고전이 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동시에 「경제분석의 기초」(1946)와 「경제원론」(초판 1948, 1985년 12판부터 공저, 2010년까지 19판 출간)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였다. 전자는 경제학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의 필독서였으며 후자는 경제학을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 학부생의 필독서가 되었다. 「경제분석의 기초」에서 ‘계약조건 하에서 원하는 바를 가장 잘 달성하게 해주는 대안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경쟁을 통해서 상호 조정되어 나타난 결과가 우리가 관찰하는 경제 현상’이라고 한 사무엘슨의 설명은 현대경제학 전 분야의 방법론적 토대를 이룬다. 이는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제를 이해하고자 했던 마셜의 경제학 방법론을 엄밀한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승화 발전시킨 것이다. 사무엘슨이 제시한 분석 방법은 20세기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류 경제학자가 채택한 경제학 방법론이다.

사무엘슨은 주옥같은 논문을 통해 현시선호이론, 린달-보웬-사무엘슨 조건, 턴파이크 정리,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의 최적 자원배분,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중첩세대모형 등의 학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반세기 이상 경제학도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대상이었다.

사무엘슨이 그의 1957년 논문을 통해 정립한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은 거시 동학 그중에서도 경제성장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모형은 램지-카스-쿠프만스의 ‘영원히 사는 개인’을 상정한 ‘무한 지평선 모형(infinite horizon model)’과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다 기간 모형을 다루는 학자는 이 둘 중 하나를 채택해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중첩세대모형은 특히 1)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저축에 관한 연구, 2)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세대

간의 자원배분 문제에 관한 연구, 3) 인류사의 시각에서 본 장기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4) 가임 능력 전환(fertility transition)에 관한 연구 등에 유효하다.

사무엘슨도 역대 민주당 정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케인스만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 자신이 자기는 케인스를 100%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정부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학자적인 그의 천성에 맞지 않은 것 같다. 게다가 1985년까지도 그의 저서 「경제원론」에서 소련의 국력이 미국의 그것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을 보면, 정세 판단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도 않았다. 뉴스위크에 시사성 있는 경제 이슈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였는데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거시경제 관리를 중시한 그의 논설은 뉴스위크를 접한 전 세계 독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7. 카를 마르크스(1818-1883):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공산주의 실현⁵⁾

마르크스는 독일 태생의 철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언론인 그리고 혁명적 공산주의자이다. 인류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계급 간의 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현재(마르크스 당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산자인 부르주아 자본가 계층이 무산자인 노동자와 농민 계층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하는 게 대세라고 주장하였다. 경제의 유일한 원천적 생산요소인 노동이 창출한 생산물의 아주 큰 몫을 부르주아 자본가가 독차지하고 정작 노동의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밖에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은 무산자인 노동자와 농민 곧 프롤레타리아가 유산자 곧 부르주아와 투쟁해서 그들의 합당한 몫을 쟁취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르크스가 꿈꾼 이상향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노동을 통해서 생산한 것을 구성원 누구나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공동 노동·균등 분배 사회다. ‘저마다 능력껏 일하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 게 마르크스가 지향한 이상이었다. 유산자도 무산자도 없는 만인이 평등한 이상 사회를 만들려면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필수라고 판단한 마

5) 활동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마르크스를 리카도 다음에 기술해야 하나 그의 학문이 다른 이의 그것과 결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기술한다.

르크스는 유산자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해서라도 공유화하자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주창한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공산주의 이상향을 건설하려면 현존하는 기득권 세력을 붕괴시켜야 하는데 그들이 저항할 게 분명하므로 전 프롤레타리아가 일치단결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필요하다면 유혈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일으켜야 한다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회의 기층 민중인 노동자와 농민은 그 수는 많으나 결사체를 형성하여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므로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선두에 서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진보적 지식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기층 민중인 노동자와 농민을 교육하고 설득해서 그들을 유산자인 부르주아 계층을 몰아낼 공산주의 혁명의 전위대로 만들자는 게 마르크스의 사상이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나온 구소련, 구소련의 무력에 굴복한 동구 및 중앙아시아 제국,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 혁명과 문화대혁명, 카스트로의 쿠바혁명, 김일성 일가의 북한식 세습형 공산주의 등이 몇 가지 사례이다. 그 밖에도 칠레의 아옌데,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콩고의 은크루마, 인도의 네루, 남아연방의 만델라, 부르키나파소의 상카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이 마르크스를 추종한 지도자의 면면이다. 마르크스를 추종하던 지도자가 지배했거나 아직도 지배하는 나라의 절대다수 기층민이 가난하고 억눌려 살았거나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볼 때 마르크스의 사상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가늠할 수 있다.

8. 노벨상의 경제학자들

1968년에 제정되어 1969년에 프리슈와 틴베르헌을 제1회 수상자로 선정한 이래 2024년의 아제몰루-존슨-로빈슨에 이르기까지 56회에 걸쳐서 96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노벨경제학상은 만민이 선망하는 영예의 대상이다. 수상자의 자격에 대해 논란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게 중론이다.

수상 당시 재직한 학교로 보면, 시카고 16명, MIT 13명, 하버드 10명 그리고 프린스턴 8명이다. 지금까지는 여성 수상자가 3명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수상하게 될 것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MIT 14명, 하버드 13명, 시카고 10명, 프린스턴 6명, 카네기 멜론과 컬럼비아와 스탠퍼드와 예일 각 4명, 존스 홉킨스와 UC-버클리 와 미네소타(미네아폴리스)와 UCLA 각 2명 그리고

브라운과 코넬과 로체스터와 뉴스쿨과 위스콘신(매디슨)이 각 1명으로 미국 대학이 배출한 수상자가 72명이며, 런던정치경제 5명, 케임브리지 4명, 옥스포드 2명, 노팅엄 1명 등 영국 대학이 배출한 수상자가 12명이다. 나머지는 레이던(네덜란드) 2명, 스톡홀름 2명, 오슬로 2명, 파리 2명, 괴테(프랑크푸르트) 1명, 레닌그라드 1명, 베를린 1명 그리고 빈 1명이다.⁶⁾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 명단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대학이 배출한 수상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MIT와 하버드와 시카고의 비중이 높다. 앞에서 소개한 경제학자의 다수가 영국인이었거나 영국에서 활동한 사람이었던 것과 견주면, 경제학 연구와 교육의 중심추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음을 본다. 다음 눈에 띄는 사실은 공산권에서 배출한 수상자가 한 명인데 그 수상자의 업적이 수리 계량 분야인 데서 알 수 있듯이 마르크스를 계승한 경제학자 중에는 수상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노벨상 심사위원회가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한쪽으로 편향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엿볼 수 있다.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미국과 유럽 소재 주요 대학에서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소재한 대학은 지금까지 한 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⁷⁾ GDP 또는 1인당 소득에서 선두권에 있는 일본, 중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호주와 뉴질랜드 소재 대학이 단 한 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해당 국가의 경제학 수준이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일본은 지금까지 22명의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경제학 분야 수상자는 한 사람도 없다.).

노벨상 수상자의 업적을 보면 경제학자의 연구 대상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방법론, 정태적 일반균형이론, 최적 자원배분, 경제동학, 수리 통계 및 계량 분석, 산업조직 시장지배력 규제, 국제무역과 통상, 인적자본과 교육, 연구 개발, 화폐, 재무, 계약이론,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정보 비대칭성, 소비, 노동, 공공선택, 외부경제, 환경 및 자원, 공유지의 경제학, 경제사, 제도, 경제성장, 경제발전, 경제와 심리, 매칭, 게임, 경매, 탐색, 여성의 경제적 역할, 합리적 기대, 시간 비일관성, 국제금융, 경제지리, 본인-대리인 문제, 자산 가격, 행동 경제, 실험 경제, 금융

6) 각 명칭에서 대학은 편의상 생략하였다. 가령 괴테(프랑크푸르트)는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괴테 대학을 뜻한다.

7) 수상자 중에 인도인이 2명 있으나 모두 영국에서 수학했다.

경제, 시계열 분석, 인과관계 분석, 확률론적 동태 일반균형 분석 등이 그것이다.

9. 몇 가지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 그리고 프리드먼 등은 사상가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던 학자였고, 리카도, 마셜, 새뮤얼슨 등은 이론가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던 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스미스와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통제경제, 그리고 케인스는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혼합경제를 주창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처한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해서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론과 대안을 제시한 데 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전부 ‘아카데미’한 학자들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배출한 수상자 96명 중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던 수상자로는 뫼르달, 하이에크, 프리드먼,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쉘러, 로머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노벨상 수상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남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발견한 주제에 대해 평생을 천착한 끝에 다수가 동의하는 학자로 대성한 이가 다수이다. 수상자 거의 전부가 평생을 아카데미 월드에서 활동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경제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것저것 적당하게 아는 데 만족하거나, 이 주제 저 주제 가리지 않고 덩벼들거나, 그 당시의 유행을 좇아 연구 주제를 선정한 수상자는 하나도 없다. 또한 연방준비은행 이사장을 역임한 버냉키를 예외로 하면 수상자 가운데 고위 관료나 기관의 책임자로서 행정가가 된 경우 역시 없다.

Ⅲ. 한국의 경제학계 동향

여기서는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시기별로 한국에서 전개된 경제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응용에 관하여 기술한다.⁸⁾

8) 조선말 개화기, 일본 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 6.25까지 전개된 경제학계의 동향을 분석한 글에는 김진현 편(1983)에 실린 강명규와 변형윤^a가 있다. 김균·이현창(2005)에 실린, 이현창, 김균·이덕정, 홍기현, 민경국이 쓴 논문을 보라.

1. 경제학자의 활약상⁹⁾

1) 종전 이후 60년대 초반까지: 경제학 제1~2세대

이 시기는 광복, 남북 대결, 건국, 한국전쟁, 전후 복구, 4.19, 5.16을 경험하면서 신생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가던 때다. 학문의 세계도 시대상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어서 경제학계로 보면 불모지에서 출발하여 갖가지 역경과 싸우면서 학문의 기틀을 다지던 시기이다. 건국 초기에는 경제학계를 이끌던 학자가 많지 않았는데 대개는 마르크스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던 일본에서 수학한 인사로서 그중 상당수가 월북한 터라 남한에 남아서 활동하던 인사는 극소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연세대학교 경상대학,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경제학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 하나의 사례가 1952년에 한국경제학회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53년에 전문 학술지인 「경제학 연구」를 창간한 것이다. 이 시기에 강단에 섰던 스무 명 내외의 학자들은 대개 일본에서 근대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한국의 경제학 제1세대에 해당한다.

1950년대 중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걸쳐서 제1세대에게 가르침을 받은 인재가 주요 대학의 교수로 봉직하면서 대학 수준의 경제학 연구와 교육의 기틀을 굳건하게 세우는 데 공헌하였다. 이들을 경제학 제2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경제학과의 커리큘럼을 정비하고 각종 원서를 교재로 채택하였으며, 전임강사급의 신진 인재들의 장단기 해외 유학을 장려하였고, 경제연구소(또는 유사한 명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을 통해서 교수의 연구를 독려하였다.

2) 60년대 중반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경제학 제3세대

경제학 제2세대에 속한 사람 가운데 일찍이 해외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소수의 인사들과 제2세대에게서 배운 다수의 신진 학자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속속 귀국해서 강단에 서기 시작한 6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의 경제학

9) 한국 경제학의 변화 양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글로는 김진현 편(1983)에 실린 강명규, 강명규(1995), 변형윤a(1983), 홍기현(김균·이헌창 편, 2005에 실림), Chung(2000)이 있다.

교육과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식 교육 제도를 그대로 이식한 서강대학교¹⁰⁾의 설립을 계기로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현대경제학을 학습한 후 사회로 진출하였다.

이즈음 한국개발연구원의 창립을 계기로 해외에서 수학한 경제학 고급인재가 속속 귀국하였다. 이때부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두뇌 환류(頭腦 還流, reverse brain drain) 현상은 국내의 두뇌 파워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는 두뇌 유출(頭腦 流出, brain drain)이 전형적이던 서남아시아,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동유럽 국가의 모습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제3세대 경제학자에게서 배움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가 해마다 수십 명씩 해외 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게 이때부터이다. 제3세대 학자 중에서 정부 요로에 진출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한 인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 80년대 중반 이후 외환 위기까지: 경제학 제4세대

경제학 제3세대에게 수학한 후 해외 유학의 길로 나선 70년대 졸업생이 물밀듯이 귀국하기 시작한 게 8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국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다수의 학자가 수도권 소재 대학은 물론이고 전국 주요 거점 대학에 정착하면서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결과 적어도 학부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 간의 우열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은 여전히 주요 대학에서만 활성화되었다. 그것도 대개는 석사과정에 치우친 것이었으며 자체적으로 경제학 박사학위자를 배출하는 대학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경제 관련 정책 연구기관이 속속 설립되면서 수백 명의 학자가 각종 연구기관에서 정책개발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공직자가 늘어났으며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연구소와 언론 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학위 취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4) 외환 위기 이후 현재까지: 경제학 밀레니엄 세대

198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 대학의 학부 졸업생과 대학원생 중에서 박사학위 취득

10) 이에 대해서는 김경환(2000)을 참조하라.

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한 추세는 해외 유학에 대한 열망이 주춤해진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 경제학계에 몇 가지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려던 풍토가, 세계의 어느 곳이건 가리지 않고 정착해서 학문 활동을 전개하는 관행으로 변화된 것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지에 동지를 틀고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한국인 경제학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대학에 다수의 한국인 경제학자가 재직 중이다. 그중 몇몇은 대학원 경제학과 순위 20위 이내에 드는 소위 일류 대학에서 봉직 중이다. 아마도 이는 한국인 경제학자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학자로 변모하는 한 모습인 듯하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재들이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진출해서 활약 중인 국내 박사학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한 편으로는 국내 대학의 대학원 교육이 충실해졌음을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게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함을 나타낸다.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소위 본교의 동일 학과(부) 출신이 대중을 이루던 대학원생의 구성이 본교의 타 학과와 타 대학의 졸업생이 대중을 이루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입학생의 다수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생이던 데에서 서울대학교 타 학과와 타 대학 졸업생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 다수가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5) 세계 속의 한인 경제학자¹¹⁾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에 발맞춰서 한인 경제학자의 국제적 위상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현저하게 높아졌다.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와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 등의 대학교, 연구소, 국제기구, 정부 기구, 민간 기업, 비정부단체 등에서 활약 중인 한국 출신 경제학자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르며 지금도 그 숫자가 꾸준히

11) 국내에 정착해서 활동하는 외국인 경제학자가 소수 있으나 그들에 대해 특별히 서술할 만한 활약상은 없어 보인다.

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북미에서 활동 중인 경제학자 주축이 되어 결성한 한미경제학회(Korea America Economic Association)가 한국경제학회, KDI, KIEP, 매일경제 등과 생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한 게 돋보인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출신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학회 일본 지회를 결성해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일도 고무적이다.

6) 경제 관련 연구소의 활약상

대한민국은 연구소의 나라라 불릴 만큼 연구소가 많다. 그중에서도 경제 관련 연구소가 가장 많으며 그 역사가 깊고 그곳에 종사하는 경제학자의 수가 많고 그들이 생산하는 연구 업적도 많다. 그 중심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비롯한 십여 개의 국책연구소가 있다. 요즘 들어 국책연구소의 연구 독립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음은 모두가 우려할 일이다. 민간 연구소도 많은데 한때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벌이던 대기업 부설 연구소는 몇 년 전부터 기업 내부용 연구에 전념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한때 활발하게 전개하던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와 정당과 시민단체의 압력 때문에 그렇게 변모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어 안타깝다.

2. 경제학 연구 주제의 변천

6. 25를 겪으면서 한국의 경제학은 그때까지 학계를 주도해 오던 마르크스 경제학과 결별하고 영미식 경제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러한 방향 전환은,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이 독일의 역사학파나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경제이론보다 우월하다는 한국인 경제학자의 자각에 바탕을 둔 선택은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해서 세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국의 지원 아래 전후 복구에 열정을 쏟던 한국의 지식인이 미국식 경제학에 경도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부류의 경제학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논쟁할 여유조차 없던 시기였다. 일본에서 수학한 마르크스주

의자나 일본 강점기부터 형성되어 온 자생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5. 16 후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던 서방 경제권에 합류하면서 미국 경제학의 국내 보급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경제학과와 커리큘럼, 교수, 교재, 연구 주제 등이 빠른 속도로 미국화되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50년대 말 이후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학자와 60년대 중반 이후에 해외 유학 또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소장 학자였다. 전 항에서 소개한 경제학 제2세대는 해외에서의 연구 경험이 적음에도 선진 경제이론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으며 그들의 제자와 후배가 경제학 선진국에 가서 선진학문을 습득하고 돌아오도록 장려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학 제2세대가 선진 경제이론을 받아들이는 데 열성적이었으며 선진 경제이론을 습득한 우수 인재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신입 교수 요원으로 채용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미시경제론(가격론, 균형이론), 거시경제론(소득, 고용, 물가, 이자율의 결정, 경기변동, 경제성장), 화폐와 금융, 조세와 재정, 산업조직, 한국 및 서양 경제사, 경제학설사,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 국제금융 등 전통적인 주제가 한국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제학계가 성장하면서 학자들의 연구 분야도 다양해졌다. 인적자본, 노동, 교육, 가족, 보건 의료, 법, 공공선택, 환경, 교통, 주택, 경제지리, 사회보장 및 연금, 소득분배,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여성의 경제적 역할, 행동 경제, 심리 경제, 체제 전환 경제, 북한 경제, 통일의 경제학, 개발 경제, 기술 경제, 정보통신 경제, 한국 근현대 경제사, 제도와 역사와 문화와 경제 등등 그야말로 인간사회의 거의 모든 현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경제학자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관심 분야가 다양해졌음을 나타낸다.

학부의 경제학 교재로 60년대에는 원서, 번안서, 번역서와 한국 학자의 저서가 혼재했으나, 70-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인이 저술한 교과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국내 학자가 저술한 교재, 원서 번역본, 원서 등이 교과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국내 학자의 저술이 증가하였음에도 원서 번역본이나 원서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대학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수준 높은 원서와 일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교재로 사용한다. 한국 경제사와 북한 연구와 같은 분야를 예외로 하면 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학술서적을 저술한 한국의 경제학자는 많지 않다. 반면에 대학원생이 읽어야 할 논문을 저술한 경제학자는 많다. 이는 80년대 중반부터 활약한 경제학 제4세대 및 밀

레니엄 세대가 저서보다는 논문을 쓰는 데 전념한 결과이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경제학 선진국 학자들이 낸 전문가용 학술서에 필적할 만한 책을 집필할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우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게재되기 때문에 일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품질은 신뢰할 수 있으나 국내 학자가 쓴 단독 또는 공동 저서의 품질을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다.

IV. 한국 경제학에 대한 비판¹²⁾

한국의 경제학 내지는 한국 경제학자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높다. 한국 경제학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 높았다. 경제학 2세대에 속한 학자가 제기한 비판이 특히 강했다.

비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미국식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어서 학문의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미국식 경제학은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 다) 미국식 경제학은 시장균형이라는 허상을 좇는다. 시장은 여간해서는 균형 상태에 있지 않으며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속성도 지니지 않는다. 라) 좁은 의미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마) 지나치게 수리 통계 계량적이다. 바) 역사와 심리와 제도의 중요성을 잊은 채 기계적이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허상을 상정한다. 사) 빈곤한 국가의 발전에 대해 무관심하며 불평등의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 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제도와 규범과 정신이 부재한 나라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 자) 선진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론이어서 후진국의 예측을 조장한다.

우리는 위에서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의 연구 주제 그리고 한국의 경제학 밀레니엄 세대가 천착하는 연구 주제가 얼마나 다양한가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위에서 제기된 비판의 대부분은, 당시까지 전개되었던 한국의 경제학과 한국 경제학자의 활동상에 대한 평가로서는 적합하지만, 현재의 경제학계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세계의 경제학계가 그만큼 많이 변화한 것이다.

경제학의 위기를 부르짖는 목소리와 경제학자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제기될 것이다.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것

12) 80년대 중반까지 제기된 비판으로는 변형운b, c(김진현 편에 수록), 조순a, b(김진현 편에 수록), 주종환(김진현 편에 수록), 정운찬(1995) 등이 있다. 그들과 결을 달리하는 평가로는 김병주(김진현 편에 수록)가 있다.

이 있기에 경제학이 발전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학 방법론으로는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할 터인데 이 역시 경제학자에게는 학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도전이 된다. 19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변화한 세상의 모습만큼이나 1960년대를 풍미하던 경제학과 지금의 경제학 그리고 당시의 경제학자와 지금 경제학자의 활약상은 말 그대로 천양지차이다.

현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한국 경제학계가 자성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중 몇 가지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우리 경제학계가 우리나라의 문제를 다루는 데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주로 소장 아카데미 경제학자에게 적용되는 평가로서, 그들이 박사학위 과정에서 다루던 일반적 주제나 선진 경제의 문제에 천착하는 시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데다 한국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적은 외국 학술지를 대상으로 논문을 쓴 결과이다. 실제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에 정착한 기간이 긴 중견 또는 노장 학자는 거의 모두 한국의 문제를 다룬 논문이나 저서를 내고 있다. 더욱이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그리고 정부나 비정부 기구에서 활약하는 경제학자들은 그 특성상 한국의 문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국 경제학자가 한국의 문제를 다루는 데 소홀하다는 비판은 전적으로 옳은 게 아니다.¹³⁾

둘째, 국내 대학의 박사학위 과정이 여전히 부실하다. 석사를 배출함에 있어서는 경제학 선진국 대학에 뒤지지 않으나 박사를 배출하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소위 일류 대학에서조차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도록 학생들을 인도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양질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할 능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일견 양심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학과당 수십 명에 달하는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이 한둘이 아닌 지금 박사학위 배출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셋째, 경제학자의 '내수 시장'이 역동적이지 않다. 한국인 경제학자의 국내외 이동은 비교적 활발하다. 해외에서 수학한 이후에 곧바로 또는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학자가 무수히 많고, 귀국했던 학자가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으며 해외로 갔다가 다시 귀국하는 학자도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학교로 옮기거나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13) 한국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경제학연구』와 *Kore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된 논문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50%를 넘기 시작한 데서 새로운 추세를 읽을 수 있다.

학자 시장만큼 역동적이지는 못하다. 유능한 타고 교수를 스카우트하는 행위에 관해 비판적이며 처음 취업한 데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도중에 자리를 옮기는 소수를 제외하면 절대다수의 경제학자가 일단 한 곳에 자리 잡으면 도태되지 않고 정년까지 자리를 지킨다. 경제학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경쟁이듯이 경제학자 시장의 경쟁도도 높이면 좋을 것이다.

넷째, 국내외 등재지에 실린 논문의 수로 학자의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작용을 낳는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높은 평판을 획득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경제학자를 평가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수의 ‘동호인’끼리 추천을 주고받아 논문을 게재하는 일이 잦다는 의심을 받는 몇몇 외국 학술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가 낳는 부작용이다. 엄격한 잣대로 등재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실린 논문의 숫자로 업적을 평가하면 우수한 학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동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등재 제도 시행 전에는 소수이던 경제학 학술지가 동 제도를 도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수십 개로 ‘폭증’하였다.¹⁴⁾

다섯째, 경제의 생산 주체인 기업 부문에 관한 연구가 부실하다. 대다수 경제학도에게 기업 또는 기업 부문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가림막 속에 있는 상자와 같다.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업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업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경제학자가 적다. 그러면서도 많은 수의 경제학자가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않고 몇몇 기업가의 일탈 행위를 근거로 해서 기업을 비난한다. 기업과 기업가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지를 외면한 채 기업과 기업가에게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다그친다. 더 나아가서 기업과 기업가가 번 돈은 누구나 가져다 써도 되는 양 무슨 일만 생기면 ‘사회’를 위해 내놓으라고도 한다. 기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제학자 일수록 그런 경향을 보인다. 기업과 기업가를 비판하려면 먼저 기업과 기업가에 관한 객관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¹⁵⁾

14) 한국경제학회의 회원이 5,000명에 이른 현실에서, 그중 1,000명이 1년에 한 편씩 논문을 게재한다 해도 약 50종의 학술지가 필요하므로, 본문에 서술한 ‘폭증’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15) 기업에 관한 이론 연구는 많으나 실증연구는 크게 부족한데 이는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학술적

여섯째, 경제학자의 현실 참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다. 생동하는 현실을 다루며 개개인 그리고 공동체 다수의 복리를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 세계에 몸담은 자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경제학자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한 행위가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됨 없이 엄밀한 학문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언제나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따른다.

V. 한국 경제학자의 소명¹⁶⁾

한국전쟁의 와중에 걸음마를 시작한 현대 한국의 경제학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괄목상대할 변화를 이루었다. 경제학자의 숫자와 능력, 경제학 교육의 내용과 질, 경제학자의 연구 성과, 국제 교류, 사회 참여 등 그 어느 모로 보건 한국의 경제학이 환골탈태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학이 그간에 이룬 성과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부족한 면이 많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학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국 경제학에 대한 대중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학문의 성숙과 독보적 연구 영역 구축

한국의 경제학자가 다른 나라의 학자보다 잘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다. 몇 가지를 보기로 하자.

1) 대표적인 것이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다.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는 연구,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를 비교 평가하는 연구, 통일 필요성 여부에 관한 연구, 통일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통일 이후 한국경제의 모습에 관한 연구 등은 한국의 경제학자가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학자보다 잘할 수 분야이다. 한때, 특히 동서독 통일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던 한국 경제학자에 의한 통일 관련 연구 활동이 지금은 소강상태에 놓여 있다.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이루

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16) 박우희 (2015)와 이현재 (2016)를 참조하라.

어질 가망이 낮다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연구 열기가 식은 것 같다. 남한이나 북한의 주민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한 통일은 어느 때고 불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비록 인기가 없거나 당장은 시급성을 절감하지 못하더라도 한국 경제학자 누군가는 통일이라는 주제에 천착하며 일생을 바칠 필요가 있다.

2) 저개발 국가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도 한국의 경제학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70년 사이에 주민 대다수가 굶고 배고픔으로 절망하던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인이 선망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근세사에서 대한민국처럼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절망 상태에 놓여 있던 대한민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것인가? 한국의 경험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여타 저개발 국가의 발전 전략에 응용할 방도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도 절대 빈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십억 명의 빈곤국 주민들이 한국인이 해낸 것과 비슷한 방식의 발전을 통해서 풍요롭고 자유로운 신인류로 변모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해 한국인 경제학자 가운데 누군가는 세계인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그 나라 국민이 지닌 인적자원의 양과 질에서 나온다는 통찰을 볼 때 모든 한국인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동/교육 연구 역시 필요하다.

3) 인구에 관한 연구는 한국 경제학자가 특히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나 저출산 고령화가 화두인 한국 사회에서 경제학자가 천착해야 할 주제 중 하나다. 인구 문제는 그 근본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인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여기서 '너무'라는 말이 함축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 즉 '적정'한 숫자가 있음을 암시한다. 가령 남한의 인구가 천만 명이면 누구나 너무 적다고 생각할 것이고 1억 명이면 누구나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남한 땅에 몇 명이 사는 게 적당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답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게 한국 경제학계의 실상이다. 다수 경제학자의 엄밀한 연구를 통해서 남한의 적정 인구가 현재의 인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문제는 인구

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구에서 적정 인수로 감축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감축하는 게 아니라 인구의 연령 구조를 합당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숫자를 늘리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치열하게 논의 중인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연구 주제이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학자가 천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최적 수명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라서 아무도 그런 물음을 던지려 하지 않는다. 유아 사망이나 청장년의 요절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식물인간 상태로 목숨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최적 수명에 대한 논의가 아주 예민한 윤리적 주제라서 아무도 선부르게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있을까?

4) 역사의 끝과 최종 인간이라는 저서에서 인류 사회 진화의 최종 도착점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설을 제시한 후쿠야마¹⁷⁾의 주장과는 달리 작금의 세상은 온갖 종류의 분열과 대립으로 우왕좌왕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동서양 문명의 대립과 충돌,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에서 드러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립,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첨예하게 진행 중인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 중동을 화약고로 만드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대립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좌와 우 또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 등등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종교의 대립과 분열을 예외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에서 언급한 거의 모든 대립과 분열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양 진영 모두 자국을 편들라는 압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라는 서방의 압력과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는 러시아의 협박 그리고 친이스라엘 진영과 반이스라엘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기를 해야 하는 처지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사상과 이념과 문명 간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어려운 처지를 잘 활용하면 그것을 한국인이 인류 문명에 공헌할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기심과 이타심, 자율과 타율(자유와 통제), 사유와 공유, 효율과 형평,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립을 넘어서는 사상과 문화와 제도와 규범을 정립해서 분열과 대립에 찌든 인류에게 조화와 공존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한국인 사상가, 철학자, 문명 비판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17) Fukuyama(1992).

아마도 이루기 어려운 꿈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경제 분야에서 「문명의 조화와 공동 번영 (Harmony of Civilizations and Prosperity for All)」를 지향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한국의 경제학도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5) 다음에 제기하는 주제는 한국인 경제학자가 특히 더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 경제학자 가운데서 유용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인재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인류는 현재 적어도 다섯 가지 대과제를 안고 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일,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일, 인간과 기계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일,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통제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일 그리고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 그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에서는 불균등 완화가 핵심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서는 인류가 자연에 대해 가하는 착취와 오남용을 참다못한 (인류에 대한) 자연의 징벌이 핵심이고,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기계의 주인인 현재의 상호 관계가 기계가 인간의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며, 살상 무기와 전쟁의 문제에서는 무력으로 타인 내지는 타국을 예측화하려는 국가나 폭력 집단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고, 인간과 신 간의 관계에서는 종래에는 감히 넘볼 수도 없던 신의 영역을 점점 더 넓고 깊게 침범해 들어가는 인간의 오만함을 신이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 학자가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도 문제 해결에 이르는 방안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실사구시 경제 교육

각급 학교의 경제학 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육을 혁신해야 하겠다. 고간의 경제 교육이 원리를 전달하는 데 치중한 탓으로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조차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소위 일류 대학의 경제학 과목에는 수백 명의 수강생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주로 고시와 취업과 국내외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한 것으로, 기업 부문의 실상, 국제무역과 통상의 실제, 기술개발의 경제적 측면,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산업 등 실제적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증진과는 거리가 있다. 말하자면 실사구시의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등 일견 경제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 그들이 정책 입안과 규제, 시설과 칼럼, 설교와 강론, 판결 등을 통해 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경제 논리를 무시한 정치 행위와 법률 행위가 얼마나 커다란 해악을 낳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언론인의 논설이나 종교인의 설교와 강론이 주는 해악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매주 진행되는 강론에서 반기업과 반시장 그리고 반서방(반미)을 주조로 하는 논지를 펼치는 천주교 사제가 많다. 사제 양성 과정에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을 위한 경제 교육에서 우리 경제학자가 수행해야 할 일이 많다. 중고교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경제 관련 산문집이나 교양서적을 집필하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흑세무민하는 낭설이 아니라 올바른 경제이론에 근거한 정론이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겠다.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교양서를 집필하는 행위를 ‘낮추어 보는’ 풍조가 만연된 한국 경제학계의 풍토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이 이 일의 선두에 선다면 학문 풍토를 쇄신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풍요한 삶과 행복한 삶

경제학의 근본 과제는 풍요한 삶과 행복한 삶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즉, Wealth (Prosperity) 와 Welfare (Happiness) 라는 두 개의 목표를 원만하게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게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다. Wealth는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잘 사는가 하는 문제이고 Welfare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조화롭게 사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남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서 실천에 옮기는 게 경제학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학자가 주축이 되어서 개인주의와 대동사상(大同思想)을 발전적으로 융화한 경제학을 정립해서 세계 경제학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강명규, “경제학 반세기의 성찰,” 『현상과 인식』, 통권 65호, 1995, pp. 47-56.
2. 김경환, “‘서강학과’가 한국의 경제학 발전에 미친 영향,” 서강대학교, 『서강 경제논집』, 제29집 1호, 2000, pp. 253-267.
3. 김 균 · 이현창 편, 『한국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이현창, “보성전문학교 시절의 경제학술활동,” 전게서: pp. 29-102.
 김 균 · 이덕정, “고려대학교 시절의 경제학술활동,” 전게서: pp. 115-161.
 홍기현, “한국에서의 경제학 발전과 과제,” 전게서: pp. 171-206.
 민경국, “독일 경제학의 미국화와 한국 경제학,” 전게서: pp. 207-238.
4. 김진현 편, 『한국경제학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1983.
 강명규, “한국경제학의 비판적 성찰,” 전게서: pp. 64-120.
 김병주, “한국경제학의 현황과 과제,” 전게서: pp. 185-191.
 변형운a, “한국경제학의 전개과정,” 전게서: pp. 39-63.
 _____b, “한국적 경제학의 정립 방향,” 전게서: pp. 172-177.
 _____c,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학교육의 과제,” 전게서: pp. 261-269.
 조 순a, “세계경제변화와 현대경제학,” 전게서: pp. 24-29.
 _____b, “한국경제론,” 전게서: pp. 178-184.
 주중환, “현대경제학의 위기와 한국경제학,” 전게서: pp. 121-144.
5. 박우희, “‘한국경제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제8권 제1호, 2015, pp. 5-17.
6. 이현재, “한국경제학회, 한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육,”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제9권 제1호, 2016, pp. 5-16.
7. 정운찬, “한국에서의 경제학 연구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1986, pp. 47-68.
8. Chung Un Chan, “Economic Research in Korea,” *Korea Journal*, Spring, 2000, pp. 155-189.
9. Samuelson, Paul A., “The Intellectual Provocateur,” *Time*, December 1969.
10. Fukuyama, F., *The End of History*, The Free Press, 1992.

Economics and Economists in Korea: Assessments and Suggestions

Hyun Jae Lee*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swer the following queries. That is, since the foundation of modern Korea, (1) How have the economics research and teaching evolved? (2) How has the number of professional economists grown, and how have the research and teaching capacities of those economists evolved? (3) Where does economics research and education in Korea stand and where do the capabilities of Korean economists stand vis-à-vis the world level? (4) What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gainst Korean economics education/research practices and Korean economists' behaviors? How valid are those criticisms? (5) What are the research topics on which Korean economists might excel?

Key Words: economics in Korea, Korean economists, assessments and suggestions

JEL Classification: A10, A20, A11

Received: June 26, 2025. Revised: July 19, 2025. Accepted: July 25, 2025.

* Member,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59, Banpo-daero 37-gil, Seocho-gu, Seoul 06579, Korea, Phone: +82-2-3400-5220, e-mail: jisoonlee@gmail.com